

134948

한국장학재단

❖ **총괄 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점)	가중치	득점
리더십 책임경영	1. 국민평가			5	4.525	5	4.525
	2. 정부권장정책			5	4.957	5	4.957
경영 효율	1. 업무효율					5	4.963
	- 노동생산성			5	4.963		
	2. 재무예산성과						
	(1) 재무예산성과			1	0.884	1	0.884
	(2) 중장기 재무관리 이행실적			2	2.000	2	2.000
	(3) 계량관리업무비			4	4.000	4	4.000
	3.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3.000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 ⁰			12	8.400
	2. 학자금 지원 사업					6	6.000
	- 학자금 지원 실적			6	6.000		
	3. 학자금 대출 사업					3	3.000
	- 학자금 대출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3	3.000		
	4. 우수 및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2	2.000
	- 우수 및 근로장학금 지원 실적			2	2.000		
	5. 학자금 대출 사후관리 사업					4	4.000
	- 신용회복 지원			4	4.000		
	6. 인재육성 지원 사업					3	3.000
- 인재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실적			3	3.000			
전체 합계		12		43		55	

* 학자금지원사업 계량지표 부족으로 계량가중치 2점 이관

I 리더십·책임경영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text{고객만족도} \times 90\% + \text{국민체감도} \times 10\%*$ $\text{고객만족도} = \text{고객만족도지수} \times 60\% +$ $\text{전년대비향상도} \times 40\%$ $*\text{국민체감도} = \text{국민체감도지수} \times 100\%$	목표부여	100	고객만족도 : 94.172 국민체감도 : 57.388	90.493	5.000	4.525

나. 평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90%와 국민체감도 10%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 2013년 고객만족도는 조사결과 85,248점, 고객만족도지수 90.496점, 전년대비향상도 99.685점으로 고객만족도 평점은 94.172점을 달성했다. 국민체감도는 조사결과와 국민체감도지수가 각각 57.388점으로 국민체감도 평점은 57.388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국민평가는 평점 90.493점, 득점 4.525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고객만족도에 있어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대출 고객 조사결과는 84.227점, 장학사업 고객 조사결과는 86.358점, 인재육성 지원 고객 조사결과 80.908점으로 상대적으로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 대출 고객 및 인재육성 지원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민평가는 고객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인지도군의 결과가 낮으므로 저인지도군에게 재단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보인다. 연령별로는 직접적인 고객층인 20대와 50~60대가 긍정적인 인지도를 나타

내었으므로 그 외 30~40대 일반고객군에게도 재단 사업의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전년도 83.666에서 85.248로 1.582 증가하였고,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는 전년도 53.269에서 57.388로 4.119 증가하였다.

2.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정부권장정책 이행률	목표부여	100%	99.143%	99.143	5.000	4.957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2013년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노동부 등 법적·권장사항에 대한 정책소관부서의 평가결과로 평가했다.

구분	가중치	부처 평가결과(%)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0.50	98.47	0.492
2.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0.70	100	0.700
3. 장애인 의무 고용	0.50	100	0.50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0	100	0.50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1.00	96.65	0.967
6.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0.40	100	0.400
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0.40	100	0.400
8. 녹색제품 의무구매	0.30	100	0.300
9.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0	100	0.500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평가제외 지표		
합계	4.80	99.143	4.759
총계(5.0으로 환산)	5.00	99.143	4.957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중 청년 신규채용 실적은 2012년말 재단 정원의 3%인 6명을 채용해야했으나 3명을 채용하였다. 실제로는 18명을 채용했으나 청년 채용인원 산정 시 2013년 증원인력 15명을 제외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전년 결과 92.200 대비 96.650으로 4.83% 상승하였는데, 이는 재단 ERP시스템에 구매품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점수가 상승했다.

라. 추세분석

- 장애인 의무고용,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나,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권장정책은 전년 결과 4.515 대비 0.442 증가한 4.957을 득점하였다.

II 경영효율

1. 업무효율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가가치 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10,403백만원 최저치: 3,949백만원	10,343백만원	99.261	5.000	4.963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상향지표이며,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의 창출 정도를 평가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목표부여 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3년 실적치는 10,343백만원으로 목표치 10,403백만원 보다 낮아 평점 99.261점, 득점 4.963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평균인원은 2012년 274,769명에서 2013년 318,462명으로 15.902%가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는 2012년 2,267,235백만원에서 2013년 3,293,877백만원으로 45.282%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8,251백만원에서 10,343백만원으로 25.349% 상승하였다.

2. 재무예산성과

(1) 자산운용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재단수익률}}{\text{재단목표수익률}}$	목표대실적	3.04%	2.60%	88.421	1.000	0.884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한국장학재단의 재단고유 여유자금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목표대실적으로 평가하였다. 2013년 운용수익률은 2.60%로 목표치인 3.04%보다 낮아 평점 88.421점, 득점 0.884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재단 자금의 운용규모(평균잔액)는 672,089백만원으로 단기자금 241,304백만원과 중장기자금 430,786백만원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 운용한 결과 각각 2.60%, 2.67%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단기운용자산(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 약정금리 하락)의 수익률 하락 및 운용 중인 실적 배당형(국공채형 위탁자산 및 연기금폴) 상품 수익률 하락 등 2013년 단기금리 하락과 장기금리 상승에 따라 재단 운용자산의 수익률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장기 재무관리 이행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채 자기자본	중장기목표부여	최고치: 1,529% 최저치: 2,239%	1,265%	100	2.000	2.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하향지표이며, 자기자본 대비 부채 감소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중장기목표부여로 평가하였으며, 2013년 실적치는 1,265%로 목표치인 1,529%를 상회하여 평점 100점, 득점 2.0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3년 중장기 재무관리 이행실적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부채와 자본은 각각 8,994,528백만원, 710,895백만원으로 총 자산은 9,705,423백만원이고 부채비율은 1,265%를 달성하였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총예산집행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0.0062 최저치: 0.0084	0.0046	100	4.000	4.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하향지표이며, 총예산집행액 대비 관리업무비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목표부여 편차로 평가하였으며, 2013년 실적치는 0.0046로 목표치인 0.0062보다 낮아 평점 100점, 득점 4.0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3년도의 실적치는 2012년의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치인 0.0069에 비해 0.0023이 감소한 0.0046을 달성하였는바, 이는 관리업무비는 2012년 41,531백만원에서 2013년 32,734백만원으로 21.183% 감소한 반면, 국가장학금 확대 시행 등으로 총예산집행액이 2012년 5,982,249백만원에서 2013년 7,059,424백만원으로 18.006% 증가한데 기인한다.

라. 추세분석

- 계량관리업무비는 2011년 0.0062, 2012년 0.0054(국제회계기준 적용시 0.0069), 2013년 0.0046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년도 총인건비-전년도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2.8%	2.552%	100	3.000	3.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정부의 예산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2013년도 인건비 인상률인 2.8% 달성여부를 목표부여로 평가하였다. 2013년 실적치는 2.552%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인건비인상률 2.8% 이내’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 득점 3.00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2012년 인건비 과다인상분 1.956% 해소를 위하여 과다인상분만큼 2013년도 임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을 추진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2년 총인건비 상한액 14,566백만원에서 2013년 총인건비 인상률 계산대상 총인건비 14,938백만원으로 2.552% 증가하여 정부지침을 준수하였다.

Ⅲ 주요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6조는 기관의 사업으로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관은 2013년 주요사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운영, 신용지원, 국가장학, 우수 및 근로 장학, 인재육성지

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계량 성과지표로서 이중지원방지 노력, 든든학자금 상환 체계개선노력, 신용회복 지원 성과관리 적정성,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효과, 장학사업제도 개선노력, 교육소외계층 지식 멘토링사업 성과관리 적정성을 선정하였다. 설립목적 관련 법률(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에 부합하게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반영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대체로 성과지표들이 주요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일부 세분화된 성과지표들이 주요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이 곧 경영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량지표 중에 ‘학자금대출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기관의 학자금 대출의 미국 FSA 대비 생산성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표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2)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학자금대출 금리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위하여 금리전망 등의 분석을 통해 관계부처와 조달금리, 시중금리 및 평균 물가상승률 대비 인하분에 대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기존에는 대출금리 결정시, 채권발행 비용 및 금리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에 일정금리를 가산하였으나, 기관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리차 보전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2013년 학자금대출 실질금리 제로화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시중금리가 다시 인상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자원 조달을 위하여 시장입찰 방식을 통하여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몇몇 극소수의 금융기관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 기관은 채권발행을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은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극소수의 금융기관들만 인수하는 현상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에 선제적 관리로서 사전 지원을 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중기 연체자에 대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학자금 대출 상환율 2013년 목표인 93.0%보다 5.2% 초과하여 98.2%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병무청과 협업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군복무기간 동안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 처리해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이 학자금연체채권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학자금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학자금연체채권이 원금의 30~70%(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스케줄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내부 지침에 따라서 조정되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자금연체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게 될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이 채권추심기관의 추심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제도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대출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 대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여대상자 선정근거로서 학생의 성적 및 소득분위 자료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내 학점 B0 이상, 든든대출은 소득 7분위 이내 학점 C0 이상, 일반대출은 소득 8~10분위 학점 C0 이상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소득분위 산정 시 활용되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되며, 재산·자동차와 같은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관에서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 소득분위 재산정을 위한 학생의 가족정보 변경 등은 가족정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기관은 향후 국세청과 연계한 저소득층 파악에 근거하여 국가장학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계기관과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관의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콜센터 및 고객제안을 통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보다 공개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및 서류 제출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신청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비상임이사(8명)는 당연직(3명)과 임명직(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3명은 관련법과 정관에 따라 지명된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며, 임명직 5명은 학자금지원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금융계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급이라는 뚜렷한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이 매년 8조 정도의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여 기관의 고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예방 및 청렴성 향상이 중요하다. 기관은 이를 위하여 외부 청렴옴부즈만 제도와 내부 부서별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지킴이는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의 부패행위 예방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청렴옴부즈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청렴옴부즈만의 경우 단지 3명(대표청렴옴부즈만 포함)으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고,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은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과 청렴지킴이 전원으로 구성되는 반부패실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에 개최된 3회의 반부패실무회의 중 제1회 회의에는 청렴옴부즈만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2회 회의에는 청렴옴부즈만 3명 모두 출석하였으나, 제3회 회의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아닌 청렴옴부즈만 1명만 출석한 것을 보면, 청렴옴부즈만의 역할과 목적인 부패행위 예방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과연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 기관의 드림장학금은 2012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로서 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과 성적(고교 내신 일반고 석차 3등급이내, 특목고 석차 4등급 이내, 영재학교 학점 A- 이상)을 고려함으로 지원자격자가 한정적이며, 기관은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명 규모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드림장학금 제도는 대상 인원은 적지만 지원금액도 고액이고 혜택이 많은 장학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지원자가 적은 것이 아쉽다. 기관의 초청으로 해외 명문대학(Rice, Chicago, Cornell, Kalamazoo, Smith, Hong Kong University 등 총 22개교, 2013년 8월~10월)의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외 대학교의 숫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자급 멘토링 및 대학생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주요사업의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의 경우 성과를 내야 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기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학생들, 나아가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보다 적극적이고도 찾아 가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FGI 같은 그룹 인터뷰나 survey가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글로벌 경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 미국 FSA와 여러 부문에 걸쳐 비교하고 있지만 경제규모, 가족 문화, 연방제에서 오는 상이점 등으로 한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보고서 곳곳에 등장하는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일정 부분 아쉬움이 있다.

(4) 주요사업의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별 환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2012년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시사점을 도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관 자체평가의 경우 대학생 설문조사,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교직원 협력체계,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추진한 것은 환류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곧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자체평가활동에 따른 문제점 보완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이중지원 방지에 대한 기관의 대책은 대학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워크숍 및 전산교육 실시, 이중지원자 실시간 안내 및 SMS, E-mail 발송, 홈페이지 이중지원 해소 방법 상세 안내, 재단 내 대출 상환 등 각 대상별로(외부기관, 학생, 대학 등) 안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에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2. 학자금 지원 사업

(1) 학자금 지원 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학자금지원액/ 평균직원	목표부여	최고치: 84,572백만원 최저치: 61,507백만원	88,216백만원	100	6	6.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상향지표이며, 대학생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1인당 학자금 지원액에 대하여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2013년도 평균직원 58,231명을 고려 시 최고목표치 84,572백만원을 4.309% 초과하는 88,216백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득점 6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013년 학자금대출액은 2,552,083백만원으로 전년도 2,326,473백만원 대비 9.698%,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584,793백만원으로 전년도 1,732,999백만원 대비 49.151%, 전체 학자금 지원 실적은 5,136,876백만원으로 전년도 4,059,472백만원 대비 26.541% 증가하였다. 평균인원은 58,231명으로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하여 전년도 52,800명 대비 10.286% 소폭 증가하였다.
- 학자금 대출액의 상승요인은 대학생 대출금리 인하,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학자금 자격요건 개선 등의 노력으로 분석되고, 국가장학금액의 상승요인은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 소득분위별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등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학자금 지원 실적 지표는 2013년도 신규 지표(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009.2학기, 든든학자금대출은 2010.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 및 확대 시행은 2012.1학기)로서, 2013년도 1인당 지원 실적은 88,216백만원(5,136,876백만원/58.231명)으로 2012년도 1인당 지원실적인 76,884백만원(4,059,472백만원/52.800명)에 비해 14.739% 상승하였다.

3. 학자금 대출 사업

(1) 학자금 대출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표준학자금대출/ 총 직원수	글로벌 실적비교	최고치: 0.00000546 최저치: 0.00000397	0.00000660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글로벌 실적비교 지표이며, 학자금 대출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표준학자금대출/총 직원수, 표준학자금대출은 각 기관 학자금대출액을 각국의 GDP로 나눈 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FSA의 학자금 대출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상향지표로 설정하였다. 2013년 재단 학자금 대출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실적은 0.00000660으로 목표치인 0.00000546을 상회하여 평점 100점, 득점 3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013년 재단 학자금 대출 실적 2,654,198백만원을 한국의 GDP 1,330,550,595백만원으로 나눈 표준학자금대출은 0.00199이며, 미국 FSA 학자금 대출 실적 103,505백만달러를 미국의 GDP 16,724,272백만달러로 나눈 미국 FSA의

표준학자금대출은 0.00619로 산출되었다.

- 재단 및 미국 FSA의 표준학자금대출을 각각 재단의 총직원수 302,231명, 미국 FSA 총직원수 1,246,000명으로 나눈 결과 미국 FSA의 학자금 대출 생산성 0.00000497 대비 재단의 학자금 대출 생산성은 0.00000660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라. 추세분석

- 학자금 대출 생산성 글로벌 경쟁력 지표는 2012년 신설된 지표로, 2012년도 재단 학자금 대출 생산성은 0.00000712(표준학자금대출 0.00185/총 직원수 259,308명)로 미국 FSA의 0.00000556(표준학자금대출 0.00682/총 직원수 1,227,000명)보다 28.058% 높았으며, 2013년도 재단 학자금 대출 생산성은 0.00000660로 미국 FSA의 0.00000497보다 32.797% 높게 평가되었다.

4. 우수 및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1) 우수 및 근로장학금 지원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장학금 수혜인원/ 전국 대학 재학생 수	목표부여	최고치: 0.028 최저치: 0.021	0.035	100	2	2,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상향지표이며, 전국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재단이 제공하는 우수 및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실적에 대하여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2013년도 우수 및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72,380명을 고려시 최고목표치 0.028을 25.000% 초과하는 실적인 0.035를 달성하여 평점 100점, 득점 2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013년 우수 및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은 72,380명으로 전년도 57,131명 대비 26.691% 증가하였고, 전국 대학 재학생 수는 2,071,110명으로 전년도 2,219,823명 대비 6.699% 소폭 감소하였다.
- 우수 및 근로장학금 지원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전공과 연계한 교외근로기관 발굴 확대, 대학 및 서울시 교육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 확대 추진, 장학 사업 수혜범위 확대 및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라. 추세분석

- 우수 및 근로장학금 지원 실적 지표는 2013년도 신규 지표로, 2013년도 지원 실적은 0.035(72,380명/2,071,110명)로 2012년도 지원 실적인 0.026(57,131명/2,219,823명)에 비해 34.615% 상승하였다. 특히, 전공과 연계한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경우 지원금액 증가 등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2013년 수혜인원은 54,979명으로 전년도 38,248명 대비 43.743% 증가하였다.

5. 학자금 대출 사후관리 사업

(1) 신용회복 지원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신용회복 지원건수/ 신용유의자수	목표부여	최고치: 77.586% 최저치: 56.426%	90.315%	100	4	4.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상향지표이며, 학자금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신용유의자수

대비 신용회복 지원(분할상환제도, 채무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 및 재단직접대출 정상화제도) 실적에 대하여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2013년도 총 신용유의자수 41,136명 중 신용회복 지원건수 37,152건으로 90.315%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득점 4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013년 신용회복 지원건수 37,152건으로 전년도 25,930건 대비 43.278% 증가하였고, 총 신용유의자수는 41,136명으로 전년도 36,763명 대비 11.895% 소폭 증가하였다.
- 학자금대출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취업을 통하여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연계신용회복 제도 확대, 소액채무자 분할상환 허용 및 손해금 전액감면조건 완화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SMS 및 Email 등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교육 콘텐츠 강화로 상환 인식 제고, 채권 유형별 상환관리 방향설정 및 신용회복지원 고도화 등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 확대 추진성과를 통해 전체 실적이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신용회복 지원 노력 지표는 2010년 신설된 지표로, 2010년 48.465%(11,760명/24,265명), 2011년 54.400%(15,659명/28,785명), 2012년 70.533%(25,930명/36,763명), 2013년 90.315%(37,152명/41,136명)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2013년도는 전년 대비 28.046% 상승하였다. 특히, 2013년 신용회복 지원건수 중 채무감면제도 실적은 16,272건으로 전년도 2,864건 대비 468.156%,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 실적은 1,438건으로 전년도 1,193건 대비 20.536% 증가하였다.

6. 인재육성 지원 사업

(1) 인재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표준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인재육성 지원 사업 참여자 수/ 평균직원	목표부여	최고치: 863.168명 최저치: 627.758명	916.333명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상향지표이며, 인재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재육성 지원 사업 참여자 수에 대하여 목표부여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2013년 평균직원 16.231명을 고려 시 최고목표치 863.168명을 6.159% 초과하는 916.333명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득점 3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

- 2013년 인재육성 지원 사업 참여자 수는 14,873명으로 전년도 12,133명 대비 22.583% 증가하였고, 2013년 평균인원은 16.231명으로 전년도 15.462명 대비 4.973% 소폭 증가하였다.
- 인재육성 지원 사업 참여자 수의 상승요인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가점 및 지원 요건 상향 조정 등 지도자급 멘토링 제도 개선, 소외지역 멘토링 확산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멘토링 캠프 프로그램 시행 등 나눔문화 확산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라. 추세분석

- 인재육성 지원 확대 실적 지표는 2013년도 신규 지표로, 2013년도 1인당

지원 실적은 916.333명(14,873명/16.231명)으로 2012년도 1인당 지원 실적인 784.698명(12,133명/15.462명)에 비해 16.775% 상승하였다. 특히, 2013년 지도자급 멘토링 멘티는 3,246명으로 전년도 2,457명 대비 32.112%, 대학생 지식멘토링 멘토는 6,962명으로 전년도 5,619명 대비 23.901%, 다문화·탈북가정 멘토링 멘토는 4,665명으로 전년도 4,057명 대비 14.986% 증가하였다.